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영옥 마리아 / 강서동

□ 천국 시민이 되기까지 극심한“영적 혼란기”를 거쳐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조차 없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들숨과 날숨을 교차하며 숨을 쉬고 있으면 다 살아있는 것일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진정한 죽음은 숨결이 끊긴 물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독신자 모임에 나왔었고 멀쩡히 살아 있던 절친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할 말을 잃고 그저 시신을 부둥켜안고 울부짖다 혼절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뿐 살아남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애도가 끝이요 의사도 어찌지 못하는 것이 생의 종말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치명적인 악성종양(말기위암)이 크게 번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대장까지 전이가 되어 엄청난 고통 중에 황망히 떠나간 친구의 급작스런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은 이 백성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깊이 고찰하여 물으며 종교에 입문→ 비로소 구원의 통로를 찾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파도는 앞선 풍파의 모진 파도를 딛고 일어서는 법인데 친구야! 너는 어찌하여 풍진 세상을 빨리 등지고 떠나갔더냐? 슬프면 슬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나 하지 이를 어찌면 좋으랴! 음울하고 말수가 적었던 조용한 성격의 친구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고통을 함구에 부쳐 그 위태로운 처지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무렵 모 지상파 방송국의 방송 모니터, 스크립터 일을 겸직하느라 너무 바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잘 챙겨주지 못한 회한과 안타까움이 물밀듯 밀려와 크나큰 상실감에 극심한 영적 혼란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부덕(不德)의 소치요 친구의 불행이 곧 내 불행이 되어 신앙심이 없을 때인데도 친구의 사후 내세는 영혼 구령은 어찌 된 것인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 깊은 영적 갈증 속에 있을 때“천주교로의 개종”을 이끄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토록 종잇장 한 장 차이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 주관자이신 절대자 신(神)의 섭리와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신론자였던 제가 한 처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종단과 종파를 두루 섭렵하며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종파 중에 진정한 참종교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원의 통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귀착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수없이 의문부호를 찍어가며 해답을 찾고자 해매던 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움직인다는데 하물며 이러한 나의 눈물겨운 하느님 아빠 찾기에 하늘도 감복했던지 마침내 참 백성인 하느님 백성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참 좋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의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한줄기 섬광처럼 부딪친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예스로 순종 할 밖에 구차한 변명이나 회피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절친을 잃은 치명적인 상실감에 움추려든 제 인생은 한없는 비탄에 젖어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바동대고 있을 때 성당에 다니는 또래 친구 노엘라를 시 행사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은 제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믿는 종교만이 최선을 지향하는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엘라를 비롯한 또래 친구들이 모두 다 종파가 문어발식이라며 제가 섬기는 종교를 비판하며 이단으로 낙인찍어 버리는 바람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작은 만남이 필연적으로 작용해 종당엔 저를 비롯한 이씨가문의 온 족속들이 천주교로 대이동을 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천주교 교우들의 그 진심 어린 충고와 참종교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마침내 진리의 원천인 가톨릭교회로의 귀착에 이르러 모든 종파를 유랑한 방랑 생활을 끝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성인 교리 반에 등록해 6개월간의 교리 공부를 마치고 대전교구 대흥동 주교좌 성당에서 주임이신 윤영균(미카엘) 신부님으로부터 세례성사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수녀님께서 직접 영적 대모님을 한 분을 정해주시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실 때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그곳에선 수도 성소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해 심령이 뜨겁게 압도되어있었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에 근무하셨던 김영혜(데레사) 대모님께로부터 운명처럼 받아든“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수도자의 길을 꿈꾸며 저를 받아주겠다는 수녀원을 찾아 순례자처럼 여러 수도회 방문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 성소를 발견하고 수도자의 길을 꿈꾸며 수도회 입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하얀 미사 보를 쓰고 성체를 영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한 마음으로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미 저는 천국 시민이 된 것 같은 영적 황홀감에(기쁨이 용솟음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을 품고 웅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교구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자마자 뿔속까지 스며든 주님의 말씀이 전기 맞은 것처럼 제 심령 속에 꽃피어 불처럼 타오르니 저는 곧바로 수도회(관상수도회) 입회 서원을 꿈꾸며 제가 달려야 할 길을 비로소 발견하고 내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문제였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하여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도회에 입회하려면 적어도 세례성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하고 연령제한 규정이 있어 28세까지만 지원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장상 수녀님 말씀을 듣고 때늦은 깨달음에 통회의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성찰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원천인 참종교로의 개종을 극적으로 이끌어 주님! 이 못난 지각생을 용서 하소서! 때늦은 깨달음을 용서하소서! 이 모두가 제 못난 제 탓이로소이다!” 장쾌틀에 엮디어 제 못난 어둠의 소치와 무지(천주교에 일찍이 입교 하지못한) 제 한계를 타하며 통절히 회심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때늦은 영혼의 개화기(정화의 단계)를 거치

게 되었던 것입니다.

□ 착한 목자이신 영적 스승으로부터 크나큰 영적 자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도상 앞에 촛불을 켜고 정녕 제게 성소가 있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이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마침내 참종교로의 직진을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신 주님!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는 오직 하나 십자가일 뿐 더 무엇이 필요하겠나이까? 제게 주어진 이 험난한 수도 성소의 길이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30세가 지나 자격 미달인 제가 감히 수도자가 될 결심을 하고(또다시 미련을 못 버리고) 성소가 있거나 한 것인지(?) 하느님의 대리자이신 한 사제를 찾아 여쭙어보겠나이다. 화답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 청주시청 바로 뒤편에 위치한 청주교구청에는 그야말로 양(羊) 내음이 물씬 풍기는 착한 목자 총대리 이한구(라우렌시오) 신부님(1997. 07. 14.선종)이 계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말 보따리(두통거리)를 풀어놓지 못하고 침묵하는 저를 보고 신부님은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보셨던지 묵주를 굴리면서도 위안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듯 죽음과 부활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성서 말씀을 대입하여 말씀해 주시며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과연 제게 수도 성소가 있는 것인지(?) 영적 상담을 여쭙기 위하여 교구청을 방문하였지만 성소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못하고 죽은 친구 영혼 구령만 간절히 소망하여 부탁드리고 내려오는데 신부님은 저를 불러세우고 두 권의 책을 황급히 들고나와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당시 청주교구 교구장이셨던 정진석 추기경님이 번역해 내신 ‘칠총산(토마스 머튼 지음)’과 윤의병 신부님이 병인박해를 배경으로 직접 쓰신 군난소설 ‘은화’였습니다.

실화(實話) 자체인 ‘은화’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주교 신자임이 드러나면 목숨을 잃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박해시대 교우들의 혹독한 수난사를 다룬 은화 속 교우들의 쓰라린 고초를 생각하면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리들에게 알려질까 봐 천주교인임을 숨기고 교우 간에도 같은 천주교 신자임을 알릴 때는 손가락과 젓가락을 겹쳐놓고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조심스레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에서는 제 심령을 강타한 뜨거움이 솟구쳐 회개의 눈물을 펄펄 쏟으며 읽었습니다. “주님! 신부님이 전해 주신 책이 곧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해답(응답)이라 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하느님 고맙습니다. 착한 목자를 제게 보내주신 하느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찌 수도자를 꿈꾸겠나이까 평신도가 된 것만으로도 기적의 역사! 그 특은의 은총입니다.”

□ 선교 사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맡은바 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참 행복은 바로 하느님 나라에 있음을 절감한 저는 그동안 외교인이었던 형제자매와 친인척 친구 병자와 독거노인 등 아직 미(未)신자인 주변인

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참신앙의 전달자로서 제게 맡겨진 선교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누리는 달콤함, 편안함, 안락함만을 쫓을 순 없기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 그대로 ❶ 청빈 ❷ 정결 ❸ 순명 복음 3덕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비록 수도원 울타리 안의 수도자는 되지 못하였더라도 수도원 밖에서의 제 직분에 충실하며 오늘도 천국에 이르는 안전한 사다리를 향하여 한걸음 또 한걸음 예수님 발자취를 음미하고 또 음미하며 조심스레 현세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필경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닐 진데 하물며 몸이 성치 못한 병자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노인들이라 하여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으랴! 죽음이 임박한 노인들이라 하여 어찌 모른 척 박대할 수 있으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어느덧 노인 돌보미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녀원에 들어가지 못한 제 신세를 한탄하며 수녀원 울타리를 부여잡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제 성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날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유일한 제 성소요 제게 맡겨진 “지상 소명”이라 여기며 저는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봉사자)로 거듭나 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고비 한고비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 뜻을 구하고 깨달음을 주신 그 뜻대로 저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복락을 뒤로하고 어느새 가장 낮은 자 봉사자가 되어있었습니다. 누에가 허물을 벗듯이 심령의 고통 중에도 울며 기도하며 거듭나고 또 거듭나기를 되풀이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는 사회적 약자, 밑바닥 인생들 고려장을 치듯 자식에게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짐짝처럼 버려진 독거노인들을 돕는 심부름꾼 도우미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궂은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도 소외된 백성들이 불러주는 그곳으로 달려가 기꺼이 종다운 종이 되어 종노릇을 기쁘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이토록 기쁨이 되고 다시 깨어나 인생이 용솟음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다보니 자연스레 운명처럼 제 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신세 한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르신들이 처한 이 딱한 사정을 굽어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주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위로해 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르신들 힘내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 하신 그 뜻대로 진심으로 몸을 낮추고 저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가장 불쌍하고 외롭고 소외된(방치된) 노인들을 찾아 용태를 살피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옷이 필요하면 옷을, 약이 필요하면 약을, 파스를 붙여달라 하면 파스를 붙여주고, 찜질을해 달라하면 찜질을 해주고, 성경을 읽어달라 하면 성경을 읽어주고,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대세를 줄 위태한 지경이 되면 대세를 주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마다 때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흔쾌히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는 여정이 너무나 무겁고 지칠 때마다 운명처럼 받아든 위 성서 말씀을 가슴속 깊은 곳에 보물처럼 품어 안고 열 번 백번 음미하고 또 음미하며 오늘도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우리가 탄 배의 종착지인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해 한탄하는 노인들 병들어 신음하는 노인들이 짐짝처럼 버려져 누워 있나이다 걷기조차 힘들어 밖에도 못 나가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울고 있나이다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 데도 없는 병든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희망이신 주님을 찾고 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 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